

2024. 3. 12.(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1일 오후 12: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 부서: 경제정책실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02-2133-8731
바이오정책팀장	안명희	02-2133-8732
담당자	오권영	02-2133-8733
관련 누리집 (메뉴)	<a href="https://www.seoulbiohub.kr">https://www.seoulbiohub.kr</a>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 서울시보건복지부,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유망 바이오기업 연결·공동연구 지원

- 지자체 최초 도입...병원 의료데이터와 바이오·의료 산업계 연결해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 4.3(수)까지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공동연구 원하는 바이오·의료기업 모집
- 바이오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탐색 기간은 줄이고, 병원 측 전문 컨설팅 제공은 강화
- 병원 - 기업 연계 강화로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 높이고, 바이오산업 성장 기회 제공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협력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서비스를 개발하길 원하는 ‘서울의 유망 바이오기업’을 연결한다.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기업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기관별로 데이터 특성과 유형이 다양해 바이오기업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복지부에서는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병원에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

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삼성서울 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3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공동 추진하는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 서울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www.seoulbiohub.kr)을 통해 3월 12일(화)부터 4월 3일(수)까지 모집한다.
  - 사업 대상은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며, 바이오 기업의 데이터 수요와 병원의 데이터 매칭 과정을 통해 총 7개 기업을 선발한다.
  
-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시는 의료데이터 구축을 위한 중복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데이터의 연구개발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최종 선발된 7개 기업에는 의료데이터 가공,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바이오허브의 시설(공간), 연구장비 활용 지원과 함께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서울바이오허브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된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43곳에서는 의료데이터 가공과 선발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지원한다.

- 시는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 서울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이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 탐색 기간을 단축하고, 병원 데이터에 대한 전문기관의 매칭과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서울의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협력은 연구개발이 다각화, 활성화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의료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 서울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요

- 운영목적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과 서울 소재 ‘바이오기업’의 연계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활성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바이오·의료 중소·벤처 기업
- 운영방법
  - 서울바이오허브 공모를 통해 기업 선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
  - 병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 가공 및 제공(연 7건)
- 지원액 : 기업별 최대 50백만원 바우처 지원
- 주요내용
  - 서울시(서울바이오허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협력을  
통해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바이오기업 연계 추진
    - ▶ (서울시) 의료데이터 구축을 위한 중복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 절감
    - ▶ (복지부) 데이터의 연구개발 활용을 통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효과성 제고
  -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의 핵심인 의료데이터의 수요자(스타트업)  
- 공급자(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매칭
    - ▶ (서울바이오허브)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유 데이터 기반 기업 선발, 사업비 지원
    -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의료데이터 가공, 선발 기업 연구개발 환경 지원
- 추진일정 : 공고접수(3.12~4.3), 기업선발(4월), 기업병원 매칭 및 지원(5월~)